

# 풍피두미술관 분관 유치 반대 예술행동 하루전 행사불허 통보에 대한 항의서한

수신 : 남구청장

참조 : 남구청 공원녹지과

제목 : 행사 하루 전 불허 통보라는 부적절한 행정처분에 대한 항의

---

## 1. 경위

10월12일(토) 오전11시 이기대 어울마당으로 계획된 예술행동을 위해 10월7일(월)에 남구청 공원녹지과에 전화로 장소사용허가에 관해 문의하니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여 당일날 사업계획서를 메일로 제출하였고 잠시후 전화로 장소사용허가신청서를 익일까지 제출을 요구하여 익일 메일로 제출하였다.

이후 같은 건으로 담당 주무관과 10월10일(목)까지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지만 단 한 차례도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고 장소 사용허가가 안 될 수도 있으니 일정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떠냐는 등의 말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10월11일(금) 오전11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전화로 장소사용 불허가통보를 받았다. 불허가 사유는 공간사용 세부계획서와 음향사용 세부계획서 그리고 행사제목에 '풍피두미술관 분관유치 반대'가 있어 집회신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2. 항의사유

풍피두미술관 분관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 대책위에서 남구청 공원녹지과에 남구청 공원녹지과가 요구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장소사용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남구청 공원녹지과는 정확히 행사 24시간전에 애초에 제출요구도 하지 않은, 위에 열거한 세가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심지어 집회신고서는 최소 48시간전 집회신고를 하고 받아야 하는 서류

인데 불과 24시간전 제출을 요구한다는 것은 행사를 불허하기 위한 구차한 구실에 불과하다.

또한 왜 진작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았냐는 대책위 담당자의 질문에 남구청 공원녹지과 담당자는 업무과다로 제출서류를 살펴보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렇다는 말도 안되는 답을 하였다.

지난 10월7일(월)에 제출한 1장짜리 사업계획서의 제목에 '풍피두미술관 분관유치 반대' 문구가 들어 있는데 그것을 못봤다는 것은 파일을 열어보지도 않은것이며 그만큼 시민의 민원을 가볍게 생각한다는 방증이다. 심지어 본 건에 관해 부산일보 기자가 경위에 관한 질문을 하였을때는 남구청 공원녹지과의 정확한 안내가 없어서 벌어진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쏙 빼고 대책위가 서류제출을 부실하게 하여 불허 통보를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답변으로 사실을 왜곡, 호도하였다.

이에 풍피두미술관 분관유치 부산시민사회 대책위는 10월12일(토) 계획된 예술행동을 진행하지 못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어렵게 시간을 만들어 함께하기로 약속했던 예술인들은 헌법에 명시된 예술·표현의 자유를 침해 당했다며 분개했고, 대책위에 함께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부적절한 행정처분을 받은것에 대한 남구청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3. 풍피두미술관 분관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 대책위의 요구사항

- 1) 남구청은 하루전 행사불허 통보에 대해 사과하라.
- 2) 남구청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라.

2024. 10. 23.

**풍피두미술관 분관유치 반대 부산시민사회 대책위**